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지난해 12월 23일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제20대 이사장에 선출됨에 따라 조계종은 연초부터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한다.

정대스님은 이사 임기 만료일인 1월23일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그 이후부터 정식으로 이사장 임기에 들어가도록 한 동국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1월23일 이전에는 총무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총무원장 궐위시 30일 이내에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중헌종법에 따라 2월 중 치러지게 된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총무원장에 출마하느냐이다. 현재 예상되는 사람은 종하스님(서울 관음사 주지)과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이다. 두 사람은 정대스님의 동국대 이사장 선출 이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유세전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교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제3의 인물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무원장이 되느냐는 문중

은 곧 개념정리 결과에 따라 다른 수행법을 조계종의 수행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간화선만을 전통수행법으로 간주해 온 조계종으로서는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문제다. 아직까지도 선원에서는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간화선 수행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도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간화선 수행이 '깨달음'이라는 본질 보다 수행자체의 '기교'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바람직한 수행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런 일련의 작업 가운데는 교학체계 정립도 포함돼 있다. 현재 조계종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를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다양한 수행형태와 교학체계를 반영하

불교계 올해는 어떤 일이...

선거·대형불사·국제대회 줄이어

올해 조계종은 총무원의 주인이 바뀌고, 수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도 총본산을 마련하는 등 종단 중흥의 이정표가 될 사업을 전개하는 등 불교계 전체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한국에서 세계 1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참여불교도 국제연대회의'가 열리고, 달라이라마 방한이 다시 추진되는 등 국제적인 이슈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불교계는 어떤 모습일지를 전망해본다.



◇조계종이 올 12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준공할 계획인 가운데 새해 아침에도 공사현장은 바쁘지만하다.

불교역사기념관 완공...문화벨트 중심

박물관·정보센터·예술 등 시민공간으로

사동과 우정총국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지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예술공연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불교음악실 등이 들어서면서 불교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불교문화종합공간의 막을 올린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장도 별관에 세워진다. 따라서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과 외국인들도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동국대 총장 새로 선출

올해 동국대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새 이사장과 총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2003년 1월 24일부터 동국학원 20대 이사장 정대스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1~2월경 15대 총장도 이사회에서 새로 뽑

힌다.

동국대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불교병원 개원, 일산 제3캠퍼스 건립 등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21세기 동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 불교문화센터(100주년기념관) 건립, 교수연구비 대폭지원, 학부제 재검토 방안을 수립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준공은 됐지만 개원하지 못해 불교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던 불교병원이 빠르게 7~9월경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학원 이사회가 전권을 위임한 병원개원준비위원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자들이 이용할 최첨단 불교병원이 원만히 개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 집행위원 11명을 포함 10여개국 100여 명이 참석한다. 대회는 불교 내부 문제와 불교 사회 참여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 △환경 △평화 △여성 △난민 △인권 등의 소 주제로 세분해 참석자간의 분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태국의 술락 박사, 스리랑카 아리아케트 박사, 캄보디아 마하 고사나다 스님 등 유명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태고종

태고종은 동방대학원대학을 올 3월경 개교한다. 기존의 대학원대학을 인수하고 학과를 증설하는 것이기는 하나, 종단 차원의 불교전문 인재양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태고종은 또 총무원 청사 이전, 종단행정 확보, 종무행정 전산화 등 5대 종단 목적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특히 총무원 청사 이전은 종단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신촌 봉원사와 시간동 법륜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태고종 동방대학원대학 3월 개교

천태유물전시관·진각종 총본산 건립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올해는 달라이라마 방한이 성사될까?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올 4월 방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다. 방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 방한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방한 허용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나, 노 후보는 비자발급허용 여부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데다,

정권 출범 초기에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무릅쓰고 방한을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방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초까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한다. 방한이 성사되면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과 강연 등이 열릴 전망이다.

INEB 한국 대회

올 7월 한국에서 열리는 INEB(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 대회 준비를 위해 현재 정토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등 10개 불교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1월 경 준비위가 발족할 예정. 준비위가 공식 발족하면 업무 및 재정 분담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INEB 한국대회는 7월 20일부터 25일까

천태종

올 3월경 천태종 유물전시관 건립공사가 충북 단양 총본산 구인사에서 시작된다. 4년 중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천태유물전시관은 총 사업비 274억 원, 건립부지 3만8천여㎡, 수장 유물만 3천여 점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관련 유물전시관으로 건립된다.

천태종은 개교 첫해를 맞는 금강대를 신홍 명문대로 육성시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난해 종단 최초로 결성됐던 캐나다 신도회를 발판으로 해외포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진각종

진각종 수행 총본산 건립이 올 2월이면 구체화된다. 종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행 총본산 건립은 종단 구심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창종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진각종은 경주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으며, 2월경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내놓고 연내에 착공한다.

진각종은 또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진각종은 1차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고, 향후 종합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건립도 계획해 놓고 있다. 또한 진각복지재단은 스리랑카에서 어린이 집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쌓아놓은 기반을 토대로 국제 구호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원우·한명우·남동우·김철우 기자

조계종 2월 총무원장 선거 “시선집중”

간화선 등 개념정립, 수행체계 확립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성사여부 관심

간의 이해관계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13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입지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 못지않게 총무원장의 역할과 비중이 지금과는 상당부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상당수 교구본사에서는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차기 총무원장을 비정체적인 인물로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개혁'적 요구가 공론화될 경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총무원장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만큼 누가 총무원장이 되든 자연스럽게 역할이 축소되면서, 총무원에서 종회로 종단 정치의 중심축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폭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경우 소의경전을 다시 선정하는 처방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조계종의 수행 및 교학체계가 대폭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말 발족한 '수행체계 연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원이 지난해 실시한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기초자료로 삼아 공청회 개최 등 이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논의과정에서 수행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역사기념관 완공

올해 12월이면 현 조계종 총무원 자리에 연면적 5천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역사문화기념관의 등장은 곧 종단사태의 흥분처럼 여겨져 온 현 총무원 건물의 퇴장과 함께 새로운 조계종 역사의 시작을 고한다. 뿐만 아니라 우정총국과 연계한 공원화 작업도 함께 완료되면서 인

조계종 수행체계 정립

'간화선 수행 방법은 이대로 좋은가' '다른 수행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올해에는 최근 몇 년간 논란이 계속돼 온 간화선과 다른 수행법에 대한 개념정리가 조계종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